

다문화 사회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방향*

전은주*

< 차례 >

1. 머리말
2. 다문화 사회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의 의의
3.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 목표 설정 방향
4. 맺음말

1. 머리말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교육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KSL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¹⁾

우리 사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국제결혼 가정이 급격히

* 이 논문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주최 2008년 국제학술회의에서 “다문화사회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던 원고를 수정한 것임.

** 부산대학교

1)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어가 ‘제2언어’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러 국가에서 장기 체류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는 제3, 제4의 언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현재 거주하고 사회 문화권의 주류 언어로서, 그들의 모국어 이외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언어라는 의미에서 ‘제2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증가하면서 단일 민족, 단일 문화의 사회에서 다인종, 다문화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 같이 한 가정 내에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 이상이 다른 언어 문화권의 배경을 가진 경우를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²⁾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이거나, 결혼을 위해서이거나 외국인이 일단 한국 사회에 편입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인실(2007)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은 순혈주의와 단일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같은 핏줄,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에 자부심이 강하여, 실제 사회는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증가되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나 사회적인 준비나 국민의 인식은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기에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다문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 국내 언어 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2007년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박영순(2007 : 13~15)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절실한 문제는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 한국 사회와의 의사소통이므로 언어 교육 정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이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학령 아동들은 학교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절박하므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 방법, 평가, 교사 양성 및 교육에 관한 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10월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18,769명이며, 이 가운데

2) 서혁(2007 : 91)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개념을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 여성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탈북자 출신의 새터민의 증가 등 한국 사회 내에 대한민국(남한)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생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새터민의 경우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문화와 이질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이 역시 좁은 의미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볼 수 있다.

데 초등학교에 15,808명, 중학교에 2,205명, 고등학교에 760명으로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집중되어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총 1,402명으로서 가운데 초등학교에 981명, 중학교에 314명, 고등학교에 107명이 재학 중이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수를 합해 보면, 총 20,171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이 83.2%, 중학생이 12.5%, 고등학생이 4.3%이다. 또 2008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의 자료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 자녀 수가 57,007명으로 이중 6세 이하가 57.1%, 12세 이하가 32.2%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를 배경으로 한 미취학 아동들이 취학 아동들보다 많고, 현재 취학 아동 중에서 초등학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향후 우리 학교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언어 교육에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취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에 관한 관점을 분류해 보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변별하여 KSL 교육의 개념과 제2언어 교육의 동향을 반영한 KSL 교육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 뒤 KSL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목표 설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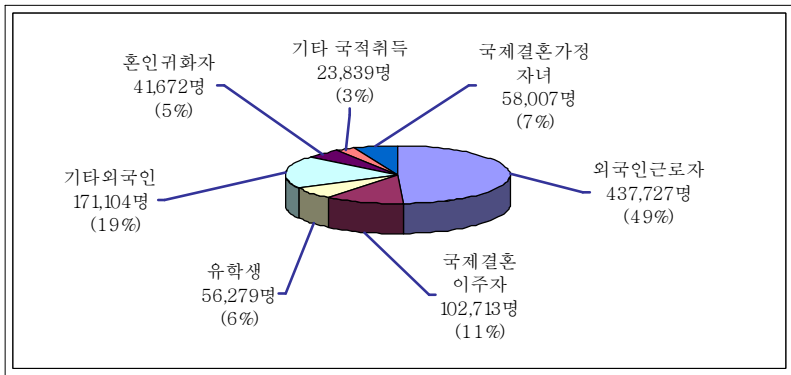
2. 다문화 사회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의 의의

2.1.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 교육에 관한 네 관점

2008년 5월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90일 초과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891,341명으로 우리 인구의 1.8%에 해당한다.³⁾ 아래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중 외국

3) 2007년 8월 법무부 발표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단기

인 근로자가 49%(437,727명), 국제결혼 이주자 11%(102,713명), 국제결혼 가정 자녀 7%(58,007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⁴⁾



<그림 1>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 현황(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 : 2)

여러 인종,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다문화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문화 가정의 부모나 자녀들과 사회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일반 가정의 구성원들과 비교했을 때 결국 언어적 소수자에 해당한다. 국제결혼 이주자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어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된다. 또 이들 가정의 자녀 역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으므로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그대로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자료이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자료는 2008년 5월1일~5월31일 동안 90일 초과 장기 체류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등록 대상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혼인귀화자 및 국제결혼 가정 자녀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4) 조혜영 외(2007 : 3)에서는 우리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가 2002년 34,710명에서 2007년 104,749명으로 5년 새 3배로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권순희, 2008 : 89).

이같이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정이 늘고 이들 가정의 2세 수도 급격히 늘면서 권순희(2006, 2008), 서혁(2007-), 박영순(2007), 윤희원 외(2008), 원진숙(2007, 2008), 조수진 외(2008), 최정순(2008) 등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 교육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박영순(2007) 이외 권순희(2006)은 호주의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육 정책과 소수 언어인 한국어 교육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또 권순희(2008)은 다문화 교육이 각 교과 내용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7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서혁(2007-)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진숙(2007)에서는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육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원진숙(2008)에서는 다문화 시대에 맞게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여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KSL 교육이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윤희원 외(2008)과 조수진 외(2008)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정순(2008)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KSL 교육이 필요하며 이때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 논의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 이주자를 위한 언어 교육과 구분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를 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 논의에는 학교 교육 안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 교육 문제를 접근하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한 연구물 내에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 문제를 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관점을 구분하려는 의도적인 목적으로 이를 분석적으로 접근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포함하여 언어적 소수자를 위해 언어 교육에서 취할 수 있는 관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제2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언어 교육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적 소수자가 그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 통용되는 주류 언어

를 교수-학습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교육의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관점에 해당한다. 국제결혼 이주자나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학을 위해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는 그들이 현재 속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류 언어이다.⁵⁾ 이 경우 이들에게 적용되는 언어 교육은 KSL 교육이 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역시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KSL 교육의 관점에서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박영순(2007), 원진숙(2007, 2008), 서혁(2007-), 권순희(2008), 최정순(2008) 등에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 정책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는 바와 동일한 관점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일상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상적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학문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최대론적 관점에서 이중언어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 등 다양할 수 있다. 이때 거의 모어에 가깝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학문적 성취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KSL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에게 다문화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을 제공해주는 방법이 된다.

둘째, 주류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모국어 화자에게 교육하는 측면, 즉 자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언어 교육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국어과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일반 가정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들이 국어과 교육을 통하여 국어와 다문화 시대,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배우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박영민·최숙가(2006: 68)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교육적 실천 방안인 다문화 교육은 각 교과와 실제적 적용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국어과 역시 다문화 교육의 교과적 적용 방안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

5)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종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L) 교육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KFL과 KSL의 차이에 대해서는 2.2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의한 바 있다.⁶⁾ 주류 사회의 언어에 능통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일반 가정 자녀와 함께 언어 교육을 받으므로 주류 언어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단계화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호주 NSW 주의 경우 영어 교육은 제2 외국어(ESL)로서의 영어 과정, 기본 과정, 표준 과정, 고급 과정, 최고급 과정 등 5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이민자나 외국인은 ESL, 기본 과정, 표준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에 능통한 이민자나 본국인이 표준 과정, 고급 과정, 최고급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권순희, 2006 : 230~231). 이중 표준 과정, 고급 과정, 최고급 과정이 바로 언어 소수자를 자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지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⁷⁾ 그러나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목표를 '국어사용능력의 신장과 국어 문화의 이해,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함양 등'으로 설정하고 있어 아직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국어 교육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하여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셋째, 외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언어 교육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그들의 자국어, 부모의 언어를

6) 이 논문에서는 국어과에서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언어능력 신장이라는 국어과 교육 목표를 고려한다는 전제를 두고 논의하면서 다문화 시대 국어교과서의 역할을 '① 소수 민족 · 문화 학생과 주류 학생들이 우리말과 글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삼는다, ② 다문화사회에서 주류학습자들로 하여금 다문화 사회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돕는다' 등과 같이 세우고 있다(박영민 · 최숙기, 2006).

7) 원진숙(2008 : 271~294)에서는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 중 국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가 전체의 85%인 상황이나 초등 국어교육에서 이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국어 교육의 큰 틀 안에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국어 교육이 KSL 교육으로까지 그 외연을 확장해야 하며, 예비 교사들에게 KSL 교육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교사 양성 기관인 교육 대학교의 학부 교육과정 속에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학, 한국어 교수 학습 방법론, 이중언어 교육론, 한 국어와 한국문화론, 한국어 교재론,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현장 교육 실습 등을 개설해야 한다는 점을 통찰력 있게 제시한 바 있다.

학습할 수 있게 하고, 대학입학교사에서 희망할 경우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이 언어를 활용하여 다문화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관점이다. 미국의 대학입학교사에서 외국어 시험으로 스페인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본어, 현대히브리어, 한국어 등 9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나, 호주의 대학입학교사에서 제2외국어로 선택되는 언어가 30여 개가 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6년 미국 정부에서 21세기에 대비한 외국어 습득의 기준으로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Culture), 연계(Connection), 비교(Comparison), 공동체(Communities) 등과 같이 5C를 제시한 바 있다. 즉 이같이 미국 내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목표 중 하나로 ‘공동체’를 설정하여 국내외의 다언어, 다문화 사회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서혁(2007 : 95~96)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 호주와 같은 다문화 국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이들 다문화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넷째,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언어 교육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이 두 개 이상의 언어와 문화를 서로 배울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영순 외(2008 : 2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의 다민족, 다언어문화 국가들이 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자국인 자녀가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 학생의 언어와 문화를 서로 배우게 한다면, 초등학교부터 외국어교육의 일환으로 상대방 어린이의 언어를 배울 수 있게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언어 교육에 접근할 때는 언어 소수자의 모국어와 모국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적인 지원을 하므로 모국어와 주류 언어 모두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중언어 능력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에 대한 교육은 제2언어 교육의 관점, 자국어 교육의 관점, 외국어 교육의 관점,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 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들 각각의 관점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중언어 교육적 관점의 경우, ‘이중언어 능력’을 ‘제2언어를 최소한 읽고 쓰는 정도’로만 보는 최소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제2언어 교육의 관점과 유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문화 사회에 노출된 언어 소수자의 모국어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류 언어 집단의 입장에서는 외국어 교육적 관점과도 유사하다. 또한 호주의 NSW 경우처럼 자국어 교육적 관점과 제2언어 교육적 관점이 통합하여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따라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원진숙(2008 : 286)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하여금 학교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부여할 수 있는 매우 가치로운 교육적 대안이나 현재의 우리 교육 현실 속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적 관점에서 지도하더라도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즉, 이 역시 다문화 사회에서 이상적인 언어 교육의 관점과 현실적인 언어 교육의 관점이 통합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2.2.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L) 교육의 차이

우리 사회에 국제결혼 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한국어 세계화 재단, 지방 자치 단체와 종교 단체, NGO 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많은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박영순(2008 : 15)에서는 외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기관도, 교육자도, 교육과정도, 교재도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최정순(2008 : 38)에서도 결혼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는 이미 외국어가 아닌 ‘제2언어’이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들은 그간 다문

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여러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의 이론적 배경에 문제가 있었음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는 국제 결혼 이주민이나 그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KSL 교육으로 인식하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 가정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KFL 혹은 KSL 교육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이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어를 제2언어로 접근하는 교육과 외국어로 접근하는 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필요하다. KSL 교육과 KFL 교육은 한국어를 목표 언어(target language)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한국어의 위상과 언어 교육의 환경은 매우 다르다. KSL 교육과 KFL 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어의 위상이 매우 다르다. KSL 교육에서 한국어는 제2언어이지만, KFL 교육에서 한국어는 외국어이다. KSL 교육의 상황에서 한국어는 사회적으로 우세한 주류 언어이지만, KFL 교육의 상황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가 사회적으로 우세한 주류 언어이며 한국어는 여러 외국어 중의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사람에게 한국어는 제2언어이고, 사회적으로 주류 언어이다. 그러나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상황에서는 중국어가 주류 언어이며, 한국어는 외국어의 하나인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처해 있는 공간적 위치에도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KSL 교육은 한국어가 주류 언어인 공간, 즉 한국 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KFL 교육은 학습자의 모국어가 주류 언어인 공간, 대개 학습자의 나라에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진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 결혼 이주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KSL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외국어로 다루고 있는 KFL의 공간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학습자가 어떤 공간에 위치해 있는가는 목표어의 기능에서도 차이가 난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이주자들에게 한국어가 가진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바로 사회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

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것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외국어를 사용하도록 제한하지 않은 한 한국어로 교수-학습이 진행되므로, KSL 교육 상황에서 한국어는 학습자의 사회생활 언어이며 교육에서의 매개어로 기능을 한다.⁸⁾ 그러나 KFL 교육의 상황에서 한국어는 한국어 교실 내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교실 밖 사회생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일반적인 교과 학습에서는 KFL 학습자의 모국어가 바로 교육 매개어가 된다. 그러므로 목표어가 가진 기능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자면 KSL 학습자에게 한국어는 매우 절박하고 절실한 삶의 수단이지만 KFL 학습자에 한국어는 국제 교류나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외국어 학습에서의 목표언어일 뿐이다.

이 밖에 KSL 교육과 KFL 교육은 교수-학습 환경에서도 차이가 난다. KSL 교육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국어를 학습하기도 하지만 자연적인 일상생활의 과정을 통해서도 한국어를 학습하기도 한다. 또 한국어 수업 시간에 학습한 것을 교실 밖에서 실제 경험을 통하여 익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KFL 교육에서 한국어 학습은 전형적으로 한국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이거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외국인이며, 교사에 의하여 계획되고, 안내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이 KSL과 KFL 교육이 둘다 한국어를 목표어로 한 언어 교육이라고 해도 학습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한국어의 위상과 기능 등에 차이가 있다 보니 실제 교육의 목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KSL 교육은 일반적으로 한국 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 전통 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학습자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등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⁹⁾ 특히 이상적, 궁극적으로는 KSL 교육이 학습자가 이중 언어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하여 KFL 교

8) 단지 다중언어 사회에서 인종과 지역 문화의 이익과 명백하게 연관되었을 때에는 원어 민의 토착 문화 과목이나 윤리 과목은 예외이다(박영순, 2007 : 27).

9) 이에 대해서는 3.1.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육은 다른 외국어 교육에서와 같이 학습자의 목표어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즉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KFL 교육의 목표에 미국의 외국어 교육의 표준이 5C를 적용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통한 문화와 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의 증대, 학습자의 모국어와의 비교, 교실 밖 사회에서 한국어의 사용 등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KSL 교육은 목표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주류 언어 사용자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KFL 교육의 목표보다는 심화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KSL 교육과 KFL 교육의 차이점

	KSL 교육	KFL 교육
한국어의 위상	제2언어	외국어
사회적 배경	한국어가 주류 언어인 공간(한국 내)	학습자의 모국어가 주류 언어인 공간 혹은 한국어가 주류 언어가 아닌 공간
한국어의 기능	사회생활 언어, 교육의 언어	국제 교류, 한국인과의 대화 언어
교수-학습 환경	한국어가 모국어인 교사, 한국어 수업을 통한 학습, 교실 밖에서도 학습 가능	한국어가 모국어인 교사 혹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교사, 한국어 수업을 통한 학습
교육 목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한국 사회와 문화, 전통 등을 이해, 학습자 모국어와 모국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등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한국어를 통한 문화와 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의 증대, 학습자의 모국어와의 비교, 교실 밖 사회에서 한국어의 사용 등

KSL 교육과 KFL 교육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모국어는 아니다. 그러나 위 <표 1>과 같이 KSL 교육과 KFL 교육은 목표어로서 한국어의 위상, 사회적 배경, 한국어의 기능, 교수-학습 환경, 교육 목표 등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이러한 차이가 한국어를 교수-학습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서도 차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2.3. 다문화 교육에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의 의의

KSL 학습자가 다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에서 제2언어 교육의 의의를 살펴보는 것은 곧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에서 KSL 교육의 역할과 교육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anks(2001)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성별, 사회적 계급의 특성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장인실, 2003 : 412). 즉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다문화 교육이 가능한 교육 환경이 함께 제공될 때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Bank(2002)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① 각 개인이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알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것, ② 역사와 문화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각하게 하는 것, ③ 특정 민족, 인종 집단의 구성원들이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과 차별을 줄이는 것, ④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상호 소통에 필요한 읽기와 쓰기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원진숙, 2008 : 276). 이들 중 다문화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읽기와 쓰기 기능을 익히는 것을 다문화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다문화 사회적 상황에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다문화 교육의 목표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나, 실제 다문화 교육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 매우 제한적인 관점에서 언어 교육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즉, 주류 언어 집단의 경우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학생이 학교 교육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고 평등한 성취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 기능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듣기 기능 역시 중요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는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못지않게 학문적 성취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 역시 확보되

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 교육에서 언어 교육 특히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언어적 소수자의 제2언어 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굳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나 언어의 힘 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더라도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평등하게 생활하고 교육받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2언어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호주의 경우, 시드니가 속한 NSW의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은 반인종 차별주의 교육, ESL 교육, 문화의 이해와 공동체 관계, 공동체 능력 구축, 난민 지원 프로그램, 통역하기와 번역 등으로 진행된다(http://www.schools.nsw.edu.au/learning). 이 경우 제한적 관점에서 의사소통 능력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2언어 교육 자체를 다문화 교육의 한 범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권순희(2008:91)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 특수적 교육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 문화 이해 교육이나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문화 수용 차원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다문화 교육의 맥락에서 교육 매개어가 무엇이 될 지와 관련하여, 이 역시 다문화 교육과 제2언어 교육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학생이든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든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문화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고 이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제2언어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들이 다문화 교육의 과정에서 제2언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2언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제2언어 교육은 다문화 교육의 한 분야이며,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 매개어이며, 전체 다문화 교육의 의사소통 기능을 지원하는 기초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 앞서 언급한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 등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도 결국 다문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언어 문제를 KSL 교육을 통하여 해결하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이다.

3.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 목표 설정 방향

3.1. 제2언어 교육의 목표 동향

어떤 교육이든 그 교육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습자가 그 교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특히 세계 여러 국가가 이미 다문화 체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는 국가 역시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제2언어 교육은 더 이상 한 국가에서 언어 소수자를 그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펼치는 시혜적 차원의 언어 정책은 아니다.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 중의 하나인 미국의 뉴욕 주에서 2004년 제시한 제2언어 교육의 학습 표준과 수행 지표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잘 살필 수 있다.

<표 2> 뉴욕주 ESL 교육의 목적과 특징

(The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Bilingual Education, 2004 : 13~14)

주요 목적과 영역	학습 표준에 나타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와 이해를 위한 영어 • 문학적 반응, 즐거움, 표현을 위한 영어 •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영어 • 사회적 교실 상호작용을 위한 영어 • 비교 문화적 지식과 이해를 위한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 학습 전략 자기점검 전략 포함 • 모든 수준의 언어에 대한 숙달도 설명 • 전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 수준의 수행지표로 지식과 기능을 통합시킴 • 학생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이용함 • 영어의 필수 요소에 대한 언어 자질 강조 •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준언어적 자질 명백히 함 • 문화적으로 적합한 의사소통 능력 장려 • 학습자의 모국어를 활용

위 <표 2>에 제시된 뉴욕 주의 제2언어 교육에서는 제2언어 학습자가 주류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 특히 학습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위에 나타난 ESL 교육의 주요 목적과 영역은 제2언어 교육이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배경에서 실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세부 학습 표준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제2언어 교육 내용 설계의 방향이 역시 제2언어 학습자가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고, 학습자의 모국어와 문화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벤쿠버가 속해 있는 캐나다의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에서는 1999년 이 주의 ESL 정책의 틀을 ‘학습자가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지적으로 발전하고 시민으로서 의식을 함양하고, 주어진 교육과정 목표에 맞는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¹⁰⁾ 이 역시 제2언어 교육의 방향을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술적인 성취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정과 존중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Duff(2005 : 52)에서는 중등학교의 ESL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년, 숙달도 수준에 관계없이 ESL 표준 문서에서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 배경에서의 의사소통, 내용 영역에서 학문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의사소통, 화용적 사회언어학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등을 구어와 문어 의사소통 모두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눈 여겨 볼 것은 제2언어로 사회적 배경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의 개인적 즐거움, 의사소통 기능 신장, 다양한 학습 전략의 사용 등으로 보고 있고, 내용 영역에서 학문적으로 성취를 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교실 상호작용에서 제2언어의 사용, 특히 말이나 글로 주어진 문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지식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 부분이다. 즉 학교 교육에서 제2언어 학습자가의 원어민 학습자와 동일한 수준의 학문적인 성취를 기본

10) 자세한 내용은 <http://www.vsb.bc.ca/vsbprograms/kto12/ESL/default.htm>을 참조.

가정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의사소통과 학문적 의사소통 모두에서 학습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필 수 있듯이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 소수자에게 제2언어 교육은 사회적 인적 자원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학습자의 지적 능력 개발과 학습자의 생활, 특히 학문적 영역에서의 성취가 원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문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결국 다문화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제2언어 교육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제2언어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있고, 실제 교육 현상을 견인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¹¹⁾

3.2. 학교 교육에서 KSL 교육의 기능

KSL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학교 교육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즉, 학교 교육 내에서 KSL 교육의 위상과 성격에 따라 KSL 교육이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자에게 지도하는 것 이외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KSL 교육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첫 단계에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KSL 교육이 다문화 교육의 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은 주류 사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

11) Williams & Snipper(1990)에서는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언어적 소수자를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추구해야 할 문식력을 기능적 문식력, 문화적 문식력, 비판적 문식력의 세 층위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원진숙, 2008 : 287~288). 이렇듯 1990년대와 달리 최근 제2언어 교육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과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 등에 관심을 보인다.

하게 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제공한다. 다문화를 배경으로 한 학습자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평등하게 교육 받고 학습한 것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이들의 한국어 능력이 기반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KSL 교육은 다문화 교육에서 추구하는 평등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또, KSL 교육에서 ‘교육의 내용’으로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언어 교육과 동시에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추구하는 지식과 태도에 대한 교육 역시 가능하다.

또 KSL 교육은 학습자의 학교 학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희원(2008)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의 문제가 곧 학업 능력 저하와 사회 정서적 불안감과 소외 현상으로 이어지는 주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조영달·박윤경(2008) 역시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원진숙(2008) 역시 다문화적 맥락 안에서 언어 교육과 관련된 쟁점 중의 하나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부진의 문제를 꼽고 있다. 이들은 학교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KSL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하여 내용 문식성(content literacy)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일상생활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에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 학습 상황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능력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떨어지는데다가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학습에 대하여 큰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KSL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과 전략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교육 목표의 성취에 있어서도 평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밖에 KSL 교육을 통하여 국어과 교육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제2언어 교육은 제1언어 교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자면 분리식 방법, 통합 보충식 방법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분리식 방법은 KSL 학습자를 일반 학습자와 분리하여 KSL 교육을 한 뒤 그들이 일정 수준의 제2언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일반 학습자와 함께 같은 교실에서 국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통합 보충식 방법은 KSL 학습자가 일반 학습자와 함께 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방과 후 수업이나 보충 수업의 방식으로 KSL 교육을 일정 수준의 제2언어 능력을 갖추기 때까지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건 학습자가 일정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하여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즉 분리식 방법의 경우 다문화 가정 자녀가 일반 가정 자녀의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게 된 다음 주류 언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되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하여 주류 언어에 관한 교육을 받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으며, 실제 주류 언어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선행 학습의 차이로 인해 학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 통합 보충식 방법의 경우도, 일반 가정 자녀와 함께 주류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이해력의 차이로 인해 학습 성취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결국 주류 언어와 관련된 교육과 KSL 교육이 한 언어를 제1언어로 학습하는가 제2언어로 학습하는가에 대한 차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게 되면, 그 언어에 대한 학습이라는 점에서 학습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어 교육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비교해 보더라도 학습의 목표와 내용은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제2언어 학습자가 학교 교육을 받게 될 때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교과는 특별한 보충 지도 없이 바로 일반 가정 자녀와 함께 통합식 교육을 하는 것에 반해 언어 교육의 경우는 분리식이나 통합 보충식의 방법을 거치게 된다. 이는 그만큼 제2언어 교육이 기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류 언어에 관한 교육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KSL 교육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만 치중하였을 때 학습자들이 국어 교육을 받게 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사용 기능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으나 문학, 문법 등에 대한 학습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KSL 교육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국어 교육을 받게 되는 시점에서 선행학습의 차이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학습자의 국어과

교육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KSL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어에 대한 제2언어 교육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자녀가 공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학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학업에서 일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복합적 성격의 교육 기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3.3. KSL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방향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 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게 체계적인 KSL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KSL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 ESL 교육에서는 일상생활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학습 의사소통 능력 신장,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KSL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서혁(2007-), 원진숙(2008)에서는 KSL 교육과정 목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혁(2007- : 102~103)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될 수 없으며, 한국내의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교과학습에 임할 수 있는 ‘4C’ — 의사소통 능력(Competence), 창의성(creativity), 문화 이해(cultural understanding), 비판적 이해(critical understanding) — 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원진숙(2008 : 289)에서는 KSL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를 단순히 한국 학교에의 ‘적응’의 차원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습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문화적 문식력, 언어적 소수자인 다문화 가정 자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들 논문에서 추구하는 KSL 교육의 목표는 앞서 살펴본 최근의

제2언어 교육이 추구하는 바와 거의 일치한다. 즉, ① 적응 혹은 생활 의사소통 능력과 ② (교과)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③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KSL 교육 목표의 근간으로 두면서, 서혁(2007)이 학습자의 교과 학습을 위하여 ‘창의성’을 강조하고, 원진숙(2008)이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도 서혁(2007), 원진숙(2008)에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세 목표를 KSL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뜻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들 목표를 근간으로 하고 앞서 살펴보았던 KSL 교육의 기능을 고려하여 KSL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의 생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KSL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으로 KSL 교육이 언어 교육으로서 가지는 일차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제2언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두었으나, 조합적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현재의 관점에서 이는 제2언어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여러 기능 중의 하나이다. 생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란 곧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적 문식성(functional literacy)을 의미한다.

둘째,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KSL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일반 학습자와 동등한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제반 능력을 익힐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습 도구로서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을 신장시켜주어야 하며, 사회적 교실 상호작용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여러 가지 학습 전략, 초인지적 전략 등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 KSL 교육도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여타 모든 교과에서 지향하는 것처럼 학습자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게 교육의 방향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KSL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평등하고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 능력 신장을 위한 기반 프로그램으로서 가지는 목표이다.

셋째, 학습자의 상호 문화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KSL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가 한국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학습자 자신과 동료 학습자의 모국어와 모국의 문화를 함께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KSL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은 문화 간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황이다. 이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배경 장소와 관련된 ‘외재적 맥락’과 상호작용에 참여한 사람의 문화와 관련된 ‘내재적 맥락’이 함께 작동되는데,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에서의 오해는 내재적 맥락에 의하여 더 많이 발생한다(Gudykunst & kim, 1992 ; Byram, 2005 : 912 재인용). 그러므로 KSL 교육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습자가 함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모국 문화, 동료 학습자의 모국 문화 등을 비교할 기회를 부여받고 문화의 특이성과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처해 있는 언어 문화적 환경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KSL 교육이 언어 교육이자 동시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기반 프로그램으로서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학습자의 국어과 교육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KSL 교육이 주류 사회의 언어 교육인 국어과 교육에 대한 기초적 혹은 보충적 성격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충족해야 할 목표이다. 국어과 교육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사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이해와 감상, 국어 사용 현상에 대한 탐구와 이해 등과 같이 문학과 문법에 대한 교수-학습이 함께 이루어져 있다.¹²⁾ 전통적으로 KSL 교육에서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 목표로서 인정을 하고 강조하

12) 교육인적자원부(2007 : 1)에서는 국어과의 성격을 ‘① 학습자는 국어 활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또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② 국어 현상을 탐구하여 국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국어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③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한국의 문학과 문법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므로 KSL 교육에서 학습자의 국어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학과 문법 학습에 대한 기초적 학습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습자가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KSL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야 하며, 사회적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KSL 교육이 가지는 정의적 측면의 교육 목표에 해당한다. KSL 교육과정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자신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한 인간으로서 자존성과 존엄성을 확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이 글에서 제시한 KSL 교육과정의 목표 방향은 선행 연구들에 나타난 유사한 목표를 통합하고, 학교 교육에서 KSL 교육의 기능에 맞게 기존의 목표를 확장시킨 것이다. 특히 KSL 교육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습자 상호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기반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추가되었다. 또 학교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KSL 교육과정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KSL 학습자에게 있을 수 있는 국어과 교육에 대한 결손을, 평등 교육과 교육 기반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미리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KSL 교육과정이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정의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최근 제2언어 교육의 동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목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견해가 전제된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제2언어 교육의 기능과 KSL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 사회에서 제2언어 교육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 실현과 인적 자원의 개발, 사회의 발전과 화합 등 위한 가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제2언어 교육은 학습자가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동화하는 데서 벗어나 언어 교육을 축으로 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 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즉 이것은 제2언어 교육이 주류 사회의 언어에 대한 의사소통 교육 자체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류 사회에서 평등하게 생활을 하고 기회를 가지며 학습자의 모국어와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까지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하여 학교 교육에서 체계적인 KSL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KSL 교육과정의 마련이 시급하다. KSL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과정인 목표 설정의 단계에서는 KSL 교육이 제2언어 교육의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가 사회적, 교육적으로 평등한 성취를 이룰 수 있게 교육 기반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학교 교육을 위한 KSL 교육과정의 목표를 ① 생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② 학습 능력의 신장, ③ 상호 문화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의 신장, ④ 국어과 교육에 필요한 배경 지식의 신장, ⑤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 등으로 제안하였다.

인간은 의사소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에게 언어는 사고의 수단이며, 교육의 수단이며 더 나아가 성장과 발전의 수단이 된다. 다문화 공동체가 상생적 관점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KSL 교육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공동체 사회의 동량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원천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 본 논문은 2008. 10. 30. 투고되었으며, 2008. 11. 4. 심사가 시작되어 2008. 11.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권순희(2006),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모색”,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 권순희(2008),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126, 한국어교육학회.
- 박영민 · 최숙기(2006),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과서 단위 개발을 위한 연구”, 청람어문교육34.
- 박영순 외(2008),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7 ㄱ), 「다문화사회의 언어문화 교육론」,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7 ㄴ), “다문화 시대의 언어 교육 정책”, 2007년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 박영순(2008), “이중언어교육의 원리와 본질”, 이중언어학회 22차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 서 혁(2007 ㄱ), “열린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2007년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 서 혁(2007 ㄴ), “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의 관계 설정”,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 원진숙(2007),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회 37회 정기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원진숙(2008), “다문화 시대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2, 국어교육학회.
- 윤희원 외(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다언어 한국어 교재<초급>」, 교육인적자원부.
- 장인실(2003),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 한국 교사 교육과정 개혁에 주는 시사점”, 교육과정연구21-3.
- 장인실(2007), “다문화 교육을 위한 초등교사 교육과정 모형 고찰”, 2007년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 조수진 외(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 이중언어학회 22차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 조영달 외(2008), 「다문화 교육의 이해를 위한 교양 교재 저술」,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달 · 박윤경(2008), 다문화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인식 조사, 「다문화 교육의 이해를 위한 교양 교재 저술」, 교육인적자원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과 자치행정과(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보고서.

최정순(2008), “다문화시대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언”, 이중언어학회 22차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Byram, M. & Feng, A.(2005), Teaching and Researching Intercultural Competence, /Eli Hinkel ed.(2005),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 Inc.

Duff, P. A.(2005), ESL in Secondary School : Programs, Problematic, and Possibilities/Eli Hinkel ed.(2005),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 Inc.

Gass, S. M. & Selinker, L.(1994),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박의재 · 이정원(1999), 「제2언어습득론」, 한신문화사.

Hawkins, M. R.(2005), ESL in Elementary Education / Eli Hinkel ed.(2005),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 Inc.

Murray, D. E.(2005), ESL in Adult Education / Eli Hinkel ed.(2005),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 Inc.

The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Bilingual Education(2004), The Teaching of Language Arts to Limited English Proficient/ English Language Learners—Learning Standards for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http://www.mest.go.kr>

<http://www.schools.nsw.edu.au/learning/yrk12focusareas/multiculted/wime.php>

<http://www.vsb.bc.ca/vsbprograms/kto12/ESL/default.htm>

<초록>

다문화 사회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방향

전은주

이 글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제2언어 교육의 기능과 KSL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 사회에서 제2언어 교육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 실현과 인적 자원의 개발, 사회의 발전과 화합 등 위한 가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제2언어 교육은 학습자가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동화하는 데서 벗어나 언어 교육을 축으로 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 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하여 학교 교육에서 체계적인 KSL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KSL 교육과정의 마련이 시급하다. KSL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과정인 목표 설정의 단계에서는 KSL 교육이 제2언어 교육의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가 사회적, 교육적으로 평등한 성취를 이룰 수 있게 교육 기반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학교 교육을 위한 KSL 교육과정의 목표를 ① 생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② 학습 능력의 신장, ③ 상호 문화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의 신장, ④ 국어과 교육에 필요한 배경 지식의 신장, ⑤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 등으로 제안하였다.

【핵심어】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L), 한국어 교육과정 목표, 상호 문화적 능력, 다문화 가정 자녀, 학습 능력

<Abstract>

Multi-Cultural Society and Directions
for Goal Setting in KSL Curriculum

Jeon, Eun-joo

This article reviews the functions of secondary language education and provides with a goal setting in KSL curriculum for a multi-cultural society. Secondary language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functions as a bridge. That is, it helps to realize the right as a member of a society, to develop human resources and the harmony.

Korea has proceed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We need a systemic KSL education at school for students from a multi-cultural family and are urgently in need of KSL curriculum. As a basic step to setting goals in designing KSL curriculum, KSL education must fully involve the trend of the secondary education and seek to function itself as an education-based program to enable the multi-cultural children to reach social and educational accomplishment to an equal extent. For this, this article suggests following as a goal for KSL curriculum at school ; 1) to improve communication ability in living Korean, 2) to improve learning competence, 3) improve intercultural competence, 4) broaden the background knowledge necessary for Korean language arts, and 5) to establish the identity and sense of community.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Korean as a secondary language(KSL), Korean as a foreign language(KFL), goals in Korean education curriculum, intercultural competence, children from a multi-cultural family, learning competence